

중국, 도시의 건축 디자인 질 관리를 위한 지침 발표

http://www.mohurd.gov.cn/jzjnykj/202004/t20200429_245239.html

<https://www.dezeen.com/2020/05/14/china-ban-copycat-architecture-supertall-skyscrapers/>

중국 정부가 도시의 건축 디자인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건축물 표절 금지, 초고층 건축물 건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의 목적을 “중국의 도시 정신을 구현하고 시대적 양식을 보여주며 중국만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건축물 복제 행위 엄격히 금지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기장, 전시관, 박물관, 대극장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복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힌 점이다. 중국에서는 파리의 에펠탑과 개선문,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타국의 랜드마크 크나 르코르뷔지에의 롱상성당, 자하 하디드의 베이징 왕징 소호처럼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건축물이 소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등장해 많은 논쟁과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건축물 높이 500m 이상은 금지, 250m 이상은 엄격 제한

일반적으로 500m 이상 신축 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신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화성능과 소방설비, 내진설계, 에너지 절약 등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50m 이상 신축 건물의 건설도 엄격히 제한되는데, 실제로 건설해야 할 경우 지방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및 관련 부서에서 건축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 디자인 질 관리

지역의 랜드마크와 고층 건축물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건축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지침에서는 건축설계 시 형태와 색상, 규모, 높이, 공간환경 측면에서 도시의 설계 요건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현장조사를 벌이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도시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중국 전역에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Shutterstock



중국의 대표적 초고층 건물 상하이타워



유럽 건축양식을 복제해 조성한 중국의 템스타운